

북구청장 처조카 자격증 타 응시자보다 낮은 수준 “면접관 개인별 점수 공개해야”

광주시 북구청이 이달 초 실시한 비서실 요원(기능 10급)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상당수가 최근 비서로 채용된 송광은 북구청장의 처조카 박모(여·32)씨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갖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9월 18일자 7면>

북구청장은 지난달 16일 인터넷 모집공고를 내면서 ▲북구 거주자이거나 북구청에서 정외 외 상근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등 3가지 응시자격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박씨가 제출한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증. 반면, 다른 지원자들 중 상당수는 박씨의 자격증보다 기능 수준이 월등히 높은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은 물론 컴퓨터 활용능력·사무자동화 자격증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가 자격증을 획득한 날도 북구청이 채용 공고를 내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7월21일이어서,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기능면에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북구청 안팎의 지적이다. 면접을 본 응시자는 총 50명. 북구 자치행정국장과 광주 S대 교수 등 면접위원 2명의 면접 점수를 합해 최고 득점자를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서류전형용을 위한 응시자격의 기준이었을 뿐”이라며 “박씨가 면접 위원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그러나 면접점수 공개는 거부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접위원 두 사람의 점수를 각각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학교 납품비리 행정실장 2명 구속

광주지법, W중 교장은 영장 기각

광주지방법원은 18일 신실 학교 기차재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W중 행정실장 윤모(여·46)씨와 S중 행정실장 윤모(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W중 교장 김모씨(55)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수환 판사는 “2명의 행정실장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 교장은 뇌물 액수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광주 S중 박모(60) 교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같은 학교 행정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인신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구속 지휘를 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례 유지 등 주민 53명 10대 소녀 ‘성매수’ 입건

경찰, ‘티켓’ 영업 다방 업주 구속

구례군 지역 유지 등 구례읍 주민 50여명이 속칭 ‘티켓다방’에 고용된 10대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성관계를 맺은 남성 중에는 금융기관 고위 간부와 전직 기관장의 친인척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서부경찰은 18일 가출소녀들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후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구례군 모티켓다

방 업주 추모(50)씨를 구속하고 추씨의 아내와 아들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간당 3만~10만원씩을 주고 티켓을 끊은 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금융기관 간부 A(39)씨와 전직 기관장의 친인척 B(46)씨, 모 관변단체 사무국장 C(29)씨 등 구례읍 주민 5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해 10월

께 가출한 김모(16)양 등 대구출신 미성년자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티켓다방에 취업시킨 뒤 인근 숙소에 감금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 최근까지 1억5천만원 상당의 화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추씨 등은 김양 등에게 하루 매상 20만원을 채우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결근비 명목으로 20만원, 시간당 지각비 3만원을 물도록 하는 등 상습적인 협박과 갈취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 등은 이 때문에 차 배달과 성매매 등으로 하루 16시간 이상 일을 해왔

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추씨는 또 김양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양 등은 지난달 말 다방을 도망쳐나와 부산에서 배회하다 경찰에 발견됐다. 부산 서부경찰은 김양 등이 속칭 ‘티켓 영업’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경찰관 5명을 구례에 파견해 이를 동안 ▲김양 등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내역 ▲압수한 업소 장부 등을 토대로 성매수 사실 관계를 재확인, 주민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주민들은 25세부터 73세까지 다양했으며, 심지어는 친인척이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이용남 부산 서부서 수사과장은 “김양 등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전화번호와 다방 장부 등을 볼 때 성매매 남성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성매매 사실을 감추고 서로 덮어주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매매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해 모두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규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본부장 정형택) 조합원 60여명이 18일 광주 동구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전광노는 오는 21일까지 남구를 제외한 각 구청을 돌며 규탄대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본부장 정형택) 조합원 60여명이 18일 광주 동구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전광노는 오는 21일까지 남구를 제외한 각 구청을 돌며 규탄대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안사범 인신 구속 ‘고무줄 잣대’

광주지법 ‘영장 기준’ 논란

광주지방법원이 최근 공안사범의 인신 구속을 놓고 ‘갈 띠(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지방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됐던 전 광주·전남 청년단체협의회(남청) 간부인

유모(34)씨가 지난 15일 열린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석 보증금 2천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유씨를 금보석으로 석방하기까지 유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통해 기각과 발부를 반복하는 등 ‘오락 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법조계 안팎에서 법원의 공안사범에 대한 영장 발부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은 국정원이 유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전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발부해줬고, 이에 따라 유씨는 지난달 24일 국정원에 의해 체포됐다. 이어 법원은 유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가 며칠 뒤에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 대해서는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태풍 피해 보수작업하다

순천서 50대 숨져

태풍으로 무너진 옆집 축대의 북구작업을 하던 한 마을 주민이 숨졌다.

18일 오후 3시10분께 순천시 흥내동 흥두마을 명모(여·73)씨 집 뒤편 콘크리트 축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마을 주민 조모(57)씨가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숨진 조씨는 지난 7월 태풍 ‘예우니아’로 인해 붕괴된 축대를 제13호 태풍 ‘산산’이 내습하기 전에 다시 손보던 중이었다.

경찰은 길이 2m·높이 1.5m의 콘크리트 축대가 기초가 없어 시공돼 때마침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나원침 (6930)



ROLEX
블렉스공식판매점
이제 광주에서만 원정 블렉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T.062-360-1340
(광주신세계 4층)

연예계(동료)의
대주 피오레
1,300여 세터 중 35명만 333세터
문의 (062)366-4220

‘샘소나이트’ 돈기방 전달 법정 시연

○현대차그룹의 채무감각 로비 의혹 재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가 18일 공판에 앞서 ‘샘소나이트’ 가방에 현금

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검증해 눈길. ○로비를 시도한 김동훈 전 안전회

계법인 대표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에게 “5천만원 일 때는 가방 1개에 담았고, 1억5천만원은 2개에 나눠 넣었으며 2억 원이나 2억5천만원은 바퀴가 달린 가방을 이용했다”고 진술했기 때문.

○재판부는 이날 구권 회화 2억5천만원을 준비해 1천만원짜리 묶음으로 쪼개 뒤 가방에 나눠 담는 과정을 시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 /연남스

세계질 푸르른 양산디
함평다이너스틱CC 주중회원모집

1. 모집기간: 2006.9.19(화) ~ 2006.9.25(월) 까지
2. 모집대상: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 회원
3. 모집장소: 함평다이너스틱CC (함평읍 남문리 1-1)
4. 모집방법: 전화 접수 또는 방문 접수
5. 모집비용: 1회 10만원 (회원비 5만원, 관리비 5만원)
6. 모집문의: 062-366-4220 (사무실)

함평다이너스틱CC
1. 회원비: 50,000원
2. 관리비: 50,000원
3. 주차비: 10,000원
4. 회원혜택: 회원 전용 주차장, 회원 전용 라운지, 회원 전용 식당 등

회원모집
1. 모집기간: 2006.9.19(화) ~ 2006.9.25(월) 까지
2. 모집대상: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 회원
3. 모집장소: 함평다이너스틱CC (함평읍 남문리 1-1)
4. 모집방법: 전화 접수 또는 방문 접수
5. 모집비용: 1회 10만원 (회원비 5만원, 관리비 5만원)
6. 모집문의: 062-366-4220 (사무실)